

# 산업보건의 일차보건의료 접근방법

신동천

직업성질환이 손상의 예방을 위한 전략으로 크게 세가지를 든다면 첫째, 근로자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의 적절한 전달, 둘째, 법규나 제도의 정비와 전문연구기관의 설립등 국가 및 사회적차원의 활동과 셋째로는 기존 산업보건 서비스 조직의 효과적인 운용이라 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산업보건 서비스의 일차 보건의료적인 접근방법이 1978년 알마알타선언(almaalta Declaration)이래로 여러나라의 많은 관심을 끌어왔고 실제 산업보건 서비스와 국가에서 시행하는 기존의 보건 서비스와의 연결을 위한 노력이 시도되어 왔다.

위에 기술한 내용을 토대로 작년 9월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에서 열렸던 '국제산업보건회의'에서 미국 NIOSH의 Bernadine B. Kuchinski가 산업보건의 현재 수준과 중요점 그리고 미래의 과제를 아울러서 보고하였다.

최근 특히 아시아지역의 빠른 산업화와 산업인구의 증가는 산업보건의 중요성을 잘 대변해 준다. 그러나 경제의 발전, 산업의 발달이 직업성질환이나 손상을 충분히 방지해주지 못한다는 것은 선진국의 예에서 그 증거를 찾아 볼 수 있다. 이

러한 면은 과학이 발달하거나 산업보건 법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거나 근로자의 건강에 대한 가치를 잘 인식하고 강조한다 하더라도 근로자 건강에 대한 기업주나 사회의 책임 그리고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이 없이는 개선되지 못할 것이다.

더 많은 근로인구를 대상으로 좀 더 접근하여 산업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일차보건의료를 통한 사업이 최근 개발도상국가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그 이유는 명백하며 쉽게 알 수 있다.

첫째, 산업보건 서비스를 받는 인구가 아주 적다는 점이다. 미접근대상인구(underserved population)가 소규모 영세공장,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중에 많다.

둘째, 근로와 건강의 관계는 매우 특수전문화된 기술로 알 수 있는 면도 있지만 많은 부분은 그렇지 않고 일차 의료를 통하여 직업성 질환을 관리할 수 있다.

셋째, 보건의료는 값이 비싼 상품이며 따라서 비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점등이다.

산업보건 서비스체계를 위한 WHO의 사업이 현재 진행중이며 30개 국가의 36개 WHO협력기관을 통하여 보고를 받고 있으며 특히 개발도상국가들의 많은 연구결과보고를 기대하고 있다.

일차보건의료가 여러가지 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이의 실행에는 지속적이고 정력적인 활동이 요구된다. 여러가지 접근방법을 시행해 볼 수 있으며 현재 수단, 태국, 쿠바 등의 국가에서는 일차보건요원, 보건소, 산업보건센터등을 통하여 전달체계를 이루고 있다. 사업내용은 다차원적으로서 건강증진, 질병예방, 진단 및 치료 그리고 재활을 포함한다.

이러한 사업계획의 가장 중요한 점은 근로자에 대한 교육, 관리자나 일차보건요원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는 근로자 자신과 지역사회의 참여이다. 또한 정부의 제도적인 뒷바침도 중요하다.

일차보건의료를 통한 산업보건전달체계는 소규모의 공장들이 현지에서 해결할 수 없는 보건의료문제 해결에 성공적일 것이라는 점은 많은 사람들이 긍정하고 있으나 총괄적인 사업을 위하여는 작업장 환경측정이나 개인보호구관리 그리고 오염방지대책등의 예방사업을 전달체계내에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직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